

陳草庵의 散曲研究

尹壽榮*

◁ 목 차 ▷

- | | |
|--------------|-----------------------|
| 一. 序言 | 2. 避世와 道德律 |
| 二. 亂世의 意味 | 3. 避世와 諦念 |
| 1. 亂世와 天意 | 四. 自然의 意味 |
| 2. 亂世와 名利否定觀 | 1. 江山如畫 속의 隱士의 삶의 樣相 |
| 3. 亂世와 是非觀 | 2. 漁樵의 諷刺意識 |
| 三. 避世의 意味 | 3. 逍遙自適하는 삶 |
| 1. 避世와 飲酒 | 五. 結語 |

一. 序言

陳草庵의 현존 산곡작품은 《全元散曲》에 26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中呂] 山坡羊이다. 《전원산곡》에서 보여주는 그의 생평에 관한 기록은 「官中丞」¹⁾이라는 단 세 글자뿐이다. 그러니까 그의 생평을 통하여 그의 작품성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그가 元代라는 난세를 살아가면서 官僚社會의 風波를 절실하게 체험했을 것이라는 점 이외에는 별로 달리 찾아볼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가 남긴 산곡작품 그 자체를 통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生平에 대한 기록의 부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록이 된다. 작가에 대한 기록의 부족이라는 현상이야말로, 원대가 漢族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담하고 궁핍하고 억눌린 시대였는가 하는 점을 보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中丞은 官名이다. 漢나라 때 中丞은 蘭臺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宮中の 圖籍을 管掌했다. 밖으로 部刺史를 감독하고, 안으로 侍御史를 統領했으며, 公卿의 奏事를 접수했다. 中憲, 혹은 中贊이라 불려지기도 했다. (《中文大辭典》卷1, 413면.)

여주는 하나의 잣대 혹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진초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의 작품을 통하여 접근해보는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작가는 작품으로서 그가 살아간 삶에 대한 조망을 한다. 문학작품을 우리 인생이 남긴 울음의 자취라고 본다면, 원대를 살아간 산곡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난세문인 진초암의 인생에 대한 「울음의 자취」, 곧 「鳴跡」이 보인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진초암의 「鳴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진초암이라는 산곡작가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산곡작품 [中呂]山坡羊·其二十五 가운데 있는 시구 「暮宿曉行一世粧」이라는 시구 때문이다.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저녁에 지친 몸으로 객사에 투숙한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면 새벽 같이 일어나 또 머나먼 인생길을 고달프게 떠나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한 평생 동안 이런저런 남의 눈치들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피폐하고 쓸쓸하며 외롭고 적막한 인생의 형상을 진초암은 이 일곱 글자로 묘사하였다고 읽었다. 아마도 원대를 살아간 漢族 출신 지식인들의 애달픈 형상을 단적으로 묘사한 명구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필자가 원대산곡을 살펴오는 가운데 배운 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부단히 이어지는 亂世史 속에서 浮浪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상 우리 인생의 역사는 亂世史였다. 그리고 문학은 대체로 그 난세의 기록으로서 말은 바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난세는 피세를 불렀고, 그 피세의 장소는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자연의 품안이었다. 村上嘉實은 《六朝思想史研究》가운데서, 「後漢書 이래로 각 正史에는 逸民傳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문헌을 찾아보아도 逸民은 언제나 존재하였고, 隱逸이 중국의 역사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逸民이 언제나 존재하였다는 것은, 隱逸이라고 부르는 逃避 없이는 중국사회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점으로부터 본다면, 중국에는 隱逸史라고 부르는 것도 성립하게 될 것이다」²⁾라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진초암의 산곡작품에 나타난 난세와 피세, 그리고 자

2)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 平樂寺書店, 1976, 京都. 242면.

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二. 亂世의 意味

亂世란 是非가 顛倒·混淆된 시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陶淵明이 〈飲酒 二十首, 其三〉 가운데에서 노래한 「도리가 상실된 지 천년이 되어가고 있다(道喪向千載)」³⁾의 「道喪」의 시대, 곧 도리가 상실된 시대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是是非非) 국면이 현실세상을 지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우기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우기는(是非非是)」난맥상이 현실세상을 지배하는 국면이 바로 亂世인 것이다. 인류역사는 난세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은 난세의 국면으로 부단히 이어져오고 있다. 시인 李炯基는 〈가을 變奏曲〉 가운데서, 「언제는 戰國時代 아닌 때가 있었던가」라고 노래한다.⁴⁾ 왜 인류에게 이와 같은 난세상황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하나의 중대한 과제가 된다. 인류가 숙명적으로 지닌 폭력의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리처드 랭햄·데일 피터슨 공저 《악마 같은 남성》은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인류, 특히 남성이 지닌 악마적 폭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 책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구상 어디에도 진실로 평화로운 사회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침팬지와 인류가 비슷한 패턴의 폭력을 보인다는 가설은 인류의 보편적 폭력성에 대한 주장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남자들이 조직적으로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질적 폭력, 남성이 폭력적이라는 사실은 범죄통계를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구상에 왜 낙원이 없는지 이해가 된다.⁵⁾

세계의 거의 모든 사회는 전쟁 참여는 물론 전쟁에 대한 논의나 계획에 있어서

3) 逵欽立 《陶淵明集》 中華書局, 1979, 北京, 88면.

4) 李炯基 시집 《둘레개의 詩》 文苑社, 1971, 서울, 35면.

5) 리처드 랭햄·데일 피터슨 지음, 이명희 옮김 《악마 같은 남성》 사이언스 북스, 1998, 서울, 131면.

도 보통 여성을 완전히 배제시킨다. 이것은 여성 무사들에 대한 민족학적 조사의 결과로, 조사된 67개 부족사회 중에서 58개 사회가 그랬으며 나머지 아홉 사회도 여성이 전쟁에 참여하기는 하나 항상 남자들보다 참여도가 적었다.⁶⁾

이와 같은 견해는 가부장제가 중심이 된 인류역사 전반에 걸쳐서 남성이 중심이 되어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수궁이 가는 면이 있다. 진초암이 살아간 원대 역시 몽고군은 남성이었고, 그 잔인함은 인류역사상 가히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살육을 통한 정복과 착취를 위한 권력이 몽고군과 원대사회가 지닌 특징의 핵심이었다. 중국인을 모조리 살육하고 중국 전역을 목장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오직 살려두어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해서였다.⁷⁾ 그런 시대를 살아간 원대의 한족이었고, 그들 중의 하나였던 진초암이었다. 이제 그 진초암이 바라본 난세의 자취를 그가 남긴 산곡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亂世와 天意

(中呂)山坡羊·其一⁸⁾

伏低伏弱, 낮게 엎드리고 약한 듯이 엎드린다.
裝呆裝落, 바보인 척하고 衰落한 척한다.

6) 《악마 같은 남성》 133면.

7) 宋子貞의 〈中書令耶律公神道碑〉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太祖께서 西征한 이후로, 倉廩府庫에는 斗粟尺錦조차 없었다. 그러자 中央別迭 등이 兪言(皆言)하였다. 『비록 漢人을 거두었으나,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차라리 모두 제거해버리고, 초목을 울창하게 하여 牧草地로 만드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러자 公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天下의 광대함과 四海의 富饒함으로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인가? 다만 행하지 못해서 그러할 뿐이다. 어찌 無用이라는 말을 하는가?』 그리하여 地稅·商稅·酒·醋·鹽·鐵·山澤을 이용하게 된다면, 매년 銀五十萬兩, 絹八萬匹, 粟四十萬石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上奏하였다. 上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다면, 국가경영의 비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대의 뜻대로 실시해보라.』(自太祖西征之後, 倉廩府庫, 無斗粟尺錦, 而中央別迭等兪言, 雖得漢人, 亦無所得, 不若盡去之, 使草木暢茂以爲牧地, 公則前曰:『夫以天下之廣, 四海之富, 何求而不得, 但不爲耳, 何名無用哉!』因奏地稅·商稅·酒·醋·鹽·鐵·山澤之移用, 歲可得銀五十萬兩, 絹八萬匹, 粟四十萬石, 上曰:『誠如卿言, 則國用有餘矣, 卿試爲之.』)(蘇天爵, 《元文類》)

8) 隋樹森 《全元散曲》 中華書局, 2000, 北京, 144면.

是非猶自來着莫.	是非는 지금도 절로 그 종지부를 찍게 된다.
任從他.	自然의 섭리에 맡겨두어라.
待如何.	달리 그 무엇을 기대할 바 있으랴?
天公尙有妨農過.	하늘조차도 농사를 방해한 적이 있다.
靄怕雨寒苗怕火.	누에는 비나 추위를 무서워하고, 새싹은 열기를 무서워한다.
陰. 也是錯.	비가 와도 문제이고,
晴. 也是錯.	해가 나도 문제이다.

亂世란 무엇인가? 진초암이 보기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낮게 엎드리고 약한 듯이 엎드리게 하며(伏低伏弱)」, 「바보인 척하고 쇠락한 척 하게 하는(裝呆裝落)」 세상이다. 낮게 몸을 낮추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다. 바보처럼 살아가고 쇠잔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다. 그래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난세라고 진초암은 말한다. 이것이 난세 속의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처세술이며 비결이다.⁹⁾ 또 난세란 무엇인가?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즉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며, 주어진 종지부가 하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체념한다. 「是非는 절로 지금도 그 종지부를 찍게 된다(是非猶自來着莫)」라는 시구는 바로 그런 체념의 경지를 묘사한다. 그것은 자아상실의 시대이다. 운명에 순응하며,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다. 이런 시대가 때가 되어 절로 지나갈 수 있기만을 소망할 뿐이다. 「자연의 섭리에 맡겨두어라. 달리 그 무엇을 기대할 바 있으랴(任從他. 待如何)」라는 시구는 이와 같은 참담한 난세문인의 심경이 나타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진초암은 天意마저 부정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소망하는 마지막 끈이 바로 「하늘(天)」이며, 「하느님(天公)」이다. 이른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바

9)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시인 金洙英이 다음과 같은 작품 <풀>을 통하여 형상화한 풀의 이미지 속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목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권영민 편 《解放40年の文學》③詩, 민음사, 1985, 서울. 68-69면.)

로 그 「숫아날 구멍」이라는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나 진초암은 「하늘조차도 농사를 방해한 적이 있다(天公尙有妨農過)」라고 지적하면서, 그가 살아간 세상의 각박함과 무도함을 방관하는 하늘을 비판한다. 「하느님도 농사일을 방해하는 적이 있었다. 누에를 키우려면 날씨가 따뜻하고 맑아야 한다. 새싹이 자라려면 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셔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늘은 그 시기를 적절히 맞춰주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비판한다. 그런 상황, 곧 「누에는 비나 추위를 무서워하고, 새싹은 열기를 무서워한다(蠶怕雨寒苗怕寒)」라는 상황이 원대라고 본다. 그것은 「비가 와도 문제이고, 해가 나도 문제이다(陰. 也是錯. 晴. 也是錯)」라고 하는, 이래저래 그르고 비틀리기만 한 난세상황이다.

2. 亂世와 名利否定觀

[中呂]山坡羊 · 其二¹⁰⁾

身無所幹.	아무 것도 하는 일 없다면,
心無所患.	아무 걱정 또한 없으리라.
一生不到風波岸.	일생 동안 風波 몰아치는 곳으로 가지 않으리.
祿休干.	俸祿은 받지 말고,
貴休攀.	富貴는 잡지 말라.
功名縱得皆虛幻.	功名이란 설사 얻는다 해도 모두가 허망한 노릇일 뿐.
浮世落花空過眼.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뜬세상의 지는 꽃잎 같은 것.
官. 也夢間.	官職에 몸담아도 꿈결 같은 인생이다.
私. 也夢間.	平民으로 살아가도 꿈결 같은 인생이다.

진초암은 이 작품을 통하여 그가 살아간 원대를 「풍파 몰아치는 강 언덕(風波岸)」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다시는 평생 동안 그 풍파 몰아치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결의(一生不到風波岸)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그런 면에서 그는 莊子의 人生觀, 곧 이른바 自適主義의 人生觀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무 것도 하는 일 없다면, 아무 걱정 또한 없으리라(身無所幹. 心無所患)」라는 시구 속에 담겨 있

10) 隋樹森, 같은 책, 144면.

다.

錢穆은 《國史大綱》에서 원대를 두고, 단적으로 「暴風雨的來臨(폭풍우의到來)」라고 단언한다.¹¹⁾ 거칠고 험난한 세상, 곧 난세를 살아본 사람이라면, 삶이란 결국 몽환 같고 꿈결 같은 존재일 뿐임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은 때로는 거칠게 풍파 몰아치는 밤바다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 우글거리는 밀림 같기도 하다. 洶湧한 밤바다 속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삶을 몽환 같은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 그때 우리는 삶의 소망을 잃고 지향점을 상실한다. 봉록이나 부귀공명은 중국 전통사회 사인계급에게 있어서 하나의 현실적인 소망의 세계였다. 그것은 일찍이 孟子가 지적했듯이, 농부에게 농사짓는 일이 본업이듯이, 士人에게 出仕는 반드시 감당해나가야만 하는 본업이었다.¹²⁾ 그리고 그것은 전통사회 속에서 지식인이 감당해오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초암은 이 작품 속에서 이를 금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 라는 의미의 “休”라는 시어는 그 금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명한다. 공명은 얻기도 힘들지만, 설사 노고 끝에 얻었다 하더라도 모두 부질없는 노릇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지는 꽃잎 같은 하찮은 존재로 인식한다. 「봉록은 받지 말고, 부귀는 잡지 말라.功名이란 설사 얻는다 해도 모두가 허망한 노릇일 뿐.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뜬세상의 지는 꽃잎 같은 것(祿休干, 貴休攀, 功名縱得皆虛幻, 浮世落花空過眼)」이라는 시구 속에 진초암의 난세관이 담겨 있다. 처절하고 공허한 시선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 삶 속에서도 지속된다고 말한다. 관직에 몸담고 있어도, 평민으로 살아가도 매 한가지이다. 「관직에 몸 담아도 꿈결 같은 세상이다. 평민으로 살아가도 꿈결 같은 세상이다. (官, 也夢間. 私, 也夢間.)」라고 하는, 夢幻 같은 삶이 이어져간다. 그렇게 진초암은 난세의 삶을 바라본다.

3. 亂世와 是非觀

11) 錢穆 《國史大綱》 商務印書館, 1956, 臺北, 451면.

12) 《孟子·滕文公, 下》: 「士之仕也, 猶農夫之耕也。」

〔中呂〕山坡羊·其六¹³⁾

風波實怕.	世上風波란 실로 무서운 것.
脣舌休掛.	脣舌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鶴長鳧短天生下.	鶴의 다리가 길고 鳧의 다리가 짧은 것도 다 하늘이 시킨 일.
勸漁家.	漁夫에게 권하고,
共樵家.	樵夫에게 권하노니,
從今莫講賢愚話.	지금부터 賢愚話를 거론하지 말 것이다.
得道多助失道寡.	그러면 得道에 많은 도움이 되고 失道는 드물어지게 될 것이다.
賢. 也在他.	英敏해도 다 남의 일이다.
愚. 也在他.	愚鈍해도 다 남의 일이다.

「世上風波란 실로 무서운 것. 脣舌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風波實怕. 脣舌休掛)」라는 시구에서, 風波와 脣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風波는 바로 是非海의 風波이다. 따라서 그것은 是非海의 공포를 의미한다. 亂世는 언제나 바로 이 是非海의 風波로부터 시작되고 전개되며 지속된다. 이런 난세에 처하여 살아가면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노력은 부질없이 허망한 노릇이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대체로 老莊의 齊物觀, 곧 「학의 다리가 길고 부의 다리가 짧은 것도 다 하늘이 시킨 일.(鶴長鳧短天生下)」이라는 시비를 초월하고자 하는 경지로 몰입하고자 한다. 鶴의 목이 길고 다리가 길다 한들, 또 오리(鳧)의 목이 짧고 다리가 짧다 한들, 그것은 모두 하늘이 시킨 일이며, 곧 自然의 뜻이다. 「하늘이 시킨 일(天生下)」에서의 天은 하늘 혹은 자연의 의미이며, 人間是非의 論理的(入世的) 경지를 벗어나는 超論理的(혹은 超世的) 경지이다.

《莊子》가운데에는 是非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나타나 있다. 그 시비관을 둘러싼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의 시비에 대한 추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부질없는 노릇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세상 시비로부터의 초월, 그것이 바로 〈逍遙遊〉에 등장하는 大鵬이나 大鯤의

13) 隋樹森, 같은 책, 145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진초암의 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세상풍파에 대한 기휘, 순설에 대한 공포감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장자적 시비관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세상에서 시비를 추구하다가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부득이 神이나 하늘(天)에게 다가가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테면 범정의 마지막 절차 속에서조차 가려질 수 없는 시비 혹은 진실이라면, 우리는 결국 이를 神이나 종교 같은 초현실의 세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屈原의 <離騷> 가운데에도 신이나 초현실의 세계로 나아가 자신의 伸冤을 갈망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다만 굴원과 장자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굴원은 철저히 현실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었음에 비하여, 장자는 현실세상으로부터 그 도피를 철저히 완수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楚辭 <漁父> 편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三. 避世의 意味

避世란 험난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난세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피세의 역사가 뒤를 따라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이른바 隱逸史라고 불리는 중국사의 한 저류이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원대는 험악하기 그지없는 시대였다. 원대는 중국인에게 있어서 난세 그 자체였다. 사실 蒙古族은 그 막강한 군사력에 통하여 중국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하고, 모든 대지를 牧草化할 생각까지도 품었다. 유목문화와 농업문화라는 문화상의 차이가 야기했던 결과였다. 그런 몽고족이 漢族을 살려두었던 것은 오로지 억압과 착취를 위해서였다.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원대의 한족 지식인들은 시문을 통하여 시대적 비운을 묘사하였다. 그 대표적 장르가 산곡이었다. 난세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심경이 피세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시가를 만들어내었다. <全元散曲> 도처에 풍미하는 이 피세의 노래들은 이와 같은 시대상황을 직설적으로 묘사한다. 진초암의 산곡작품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1. 避世와 飲酒

〔中呂〕山坡羊 · 其三¹⁴⁾

林泉高攀.	林泉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간다.
蠶鹽貧渴.	蠶鹽으로 가난하게 살아간다.
官囚身慮皆參破.	官囚身慮의 苦難 모두 겪어 보았다.
富如何.	부유하게 살아간다 한들 무엇하며.
貴如何.	귀족처럼 살아간다 한들 무엇하리?
閒中自有閒中樂.	한가한 삶 속에는 그런 대로 한가한 삶 속의 기쁨이 있다.
天地一壺寬又闊.	술 한 병이면 온 세상이 다 너그러워진다.
東. 也在我.	동쪽으로 가도 내 세상이다.
西. 也在我.	서쪽으로 가도 내 세상이다.

林泉은 피세자(은둔자)의 삶의 처소이다. 高攀은 정신적 삶의 高逸한 경지에 대한 추구이며, 蠶鹽은 소금에 절인 나물 반찬이며 곧 검소한 물질적 삶의 경지에 대한 상징이다. 官囚는 관직에 얽매여 있는 신분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高攀과 蠶鹽과 官囚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물질적인 빈핍을 감수해야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하면 육신의 부자유와 더불어 정신의 부자유마저 감수해야 한다. 중국의 지식계층사에서 仕隱은 바로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키워드가 된다. 그리하여 그 모순을 적정선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功成身退라는 방책이 제시된다. 그 모순이 적정선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兔死狗烹의 참담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작품 가운데서 진초암은 名利否定에 대한 관념을 분명히 드러낸다. 「부유하게 살아간다 한들 무엇하며, 귀족처럼 살아간다 한들 무엇하리?」(富如何. 貴如何)라는 시구들은 그의 이와 같은 관념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부귀는 분명 전통사회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세계였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이념의 완성은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허여했다. 그러나 관료사회는 중국 사인계층을 죽음으로 모는 함정이기도 했다. 귀양 가서 사약을 기다리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할 위험은 항시 존재했

14) 隋樹森, 같은 책, 145면.

다.

진초암은 「한가한 삶 속에는 그런 대로 한가한 삶 속의 즐거움이 있다(閒中自有閒中樂)」라고 노래함으로써, 「한가한 삶 속의 즐거움(閒中樂)」이라는 정신세계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한 병의 술을 통하여 그는 너그러워지고 자유로워진 정신세계를 구가한다. 그 한 병의 술은 앙리 마스베로가 죽림칠현이 마시던 술을 두고 표현했던 바와 같은 「세상 밖으로, 세상 위로(en dehors et a udessus monde)」라는 초연한 경지를 허여한다.¹⁵⁾

「동쪽으로 가도 내 세상이다. 서쪽으로 가도 내 세상이다.(東. 也在我. 西. 也在我)」라고 하는 自適의 경지가 펼쳐진다. 그것은 쑤나라의 張翰이 일찍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적하는 삶이다(人生貴得適志)」¹⁶⁾라고 말한 바와 같은 그런 자적의 경지이다. 술은 확실히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가장 손쉽게 피하고 잊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盧摯의 산곡작품 <沉醉東風: 對酒> 가운데에는 「葫蘆를 들어 술을 마시며 陶醉한 가운데 한가로이 지낸다(葫蘆提醉中間過)」라는 시구가 보인다. 이는 술이 부여하는 자적하는 삶의 경지를 드러낸다. 「醉中間過」는 술과 자적의 결합을 보여준다. 한가롭기에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술은 그 한가로움에 아름다운 彩色을 덧입혀준다. 그것은 詩的인 朦朧狀態라 해야 할 것이다.(拙稿 <盧摯의 散曲研究>, 425면 참조¹⁷⁾) 진초암의 이 산곡작품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술과 자적의 결합을 보여준다. 그것이 「한가한 삶 속에는 그런 대로 한가한 삶 속의 기쁨이 있다. 술 한 병이면 온 세상이 다 너그러워진다(閒中自有閒中樂. 天地一壺寬又闊)」라는 시구가 보여주고 있는 초세적 경지이다.

2. 避世와 道德律

[中呂]山坡羊·其十¹⁸⁾

15)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 平樂寺書店, 1976, 京都. 30면.

16) <晉書>卷92, 列傳 第 62, <文苑列傳>, 鼎文書局, 1978, 臺北, 2384면.

17) <瀋園金喆洙教授停年紀念論叢> 瀋園金喆洙教授停年紀念論叢委員會, 1997, 5. 서울. 417-442면.

休爭閒氣.	부질없이 남과 다투려하지 말라.
休生不義.	不義한 일을 저지르려 하지 말라.
終身孝悌心休退.	終身토록 孝悌하며 그 마음 변치 말라.
去他疑.	남의 의심 살 일은 절대로 하지 말며,
掩人非.	남의 비리나 허물은 덮어주고 가려주라.
得官休倚官之勢.	관직에 있을 때 관직 믿고 설치지 말고,
家富莫驕貧莫恥.	부유하면 겸손하고 가난해도 부끄러워 말라.
天. 也順你.	그러면 하늘도 너의 뜻을 따르리라.
人. 也順你.	그러면 사람도 너의 뜻을 따르리라.

진초암은 이 작품을 통하여 난세를 살아가면서 그가 터득한 여러 가지 도덕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의 작품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왜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남기려 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시가작품은 물론 생명력이 약하다. 감동력이 작고 호소력이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산곡 작품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작품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난세에 처하여 살아갈 때, 오직 도덕적인 삶만이 그나마 난세의 혈로를 온전하게 헤치고 나가는 방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거친 난세에서 그나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도덕률이 있을 뿐이다. 진초암은 우리에게 이점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생각된다. 道德이란, 그 본연적인 의미, 곧 老子 《道德經》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도덕은 道와 德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각각 절대진리와 그 구현을 의미한다.¹⁹⁾ 난세에 처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血路를 뚫고 지나감을 의미한다. 그때 그 血路는 漆黑같이 어둡고 캄캄한 절벽의 산길이나 풍파 몰아치는 밤바다와 같은 형국이다. 그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함으로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오직 道德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도덕적 싸움이다. 克己와 慎獨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18) 隋樹森, 같은 책, 146면.

19) 老子 《道德經》은 크게 볼 때, 제1장부터 제37장까지는 道經, 제38장부터 제81장까지는 德經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道는 絶代眞理, 德은 그 絶代眞理의 구체적 顯現을 의미한다.

힘겨운 싸움이다.

진초암은 이 작품 가운데서, 「부질없이 남과 다투려 하지 말라. 불의한 일을 저지르려 하지 말라(休爭閒氣. 休生不義.)」, 「終身도록 孝悌하며 그 마음 변치 말라(終身孝悌心休退)」, 「관직에 있을 때 관직 믿고 설치지 말라(得官休倚官之勢)」, 「부유하면 겸손하고 가난해도 부끄러워 말라(家富莫驕貧莫恥)」, 등 등의 도덕적인 교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때 하늘도 사람도 너의 뜻을 따르리라고 말한다. 도덕적인 교훈이 거의 그러하겠지만, 진초암은 이들 시구 속에서 역시 「休」나 「莫」이라는 명령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도덕이야말로 이 난세를 무난히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최소한도의 조건이라는 진초암의 인식을 나타낸다.

3. 避世와 諦念

[中呂]山坡羊·其十一—20)

官資新受.	官資를 새로 받는다.
功名將就.	功名으로 장차 나아가고자 한다.
折腰爲在兒曹殼.	折腰는 兒曹의 손바닥 안에 있다.
賦歸休.	歸去來를 노래한다.
便抽頭.	곧 들여 밀어 넣었던 머리를 뽑아내고자 한다.
黃花恰正開時候.	국화꽃이 바야흐로 한창 피어날 무렵이다.
籬下自教巾漉酒.	국화꽃 피어 있는 울타리 아래에서 스스로 葛巾으로 술을 거른다.
功. 也罷手.	功도 체념한다.
名. 也罷手.	名도 체념한다.

「官資新受」는 봉록을 새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공명은 봉록이라는 물질적 보상을 전제한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가사상의 대의명분도 실상 봉록이라는 물질적 보상에 근거하여 존립한다. 그러기에 공자도 부귀가 지나는 강력한 현실적 힘에 대하여, 「富와 貴는 사람의 소망하는 바이다(富與貴, 人之

20) 隋樹森, 같은 책, 146면.

所欲也),²¹⁾라고 말하면서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초암은 이 작품 가운데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던 원대는 漢族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신적 수모(折腰)」를 강요당하던 시대였다. 「兒曹은 어린아이들이며, 결국 문화가 저급한 지배자였던 몽고족을 상징한다고 생각된다. 「歸去來를 노래한다. 곧 들어 밀어 넣었던 머리를 뽑아내고자 한다(賦歸休. 便抽頭)」는 몽고족이 지배하는 이와 같은 수모적 관료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그 이탈, 곧 귀거래·은둔의 이유를 「국화꽃이 바야흐로 한창 피어날 무렵이다(黃花恰正開時候)」로 돌리고 있다. 국화가 피기 시작하는 시기를 바로 은둔을 감행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다. 국화는 隱逸之宗이라 불려지는 도연명의 귀거래를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국화 때문에 은둔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도연명의 정신세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국화꽃 피어 있는 울타리 아래에서 스스로 葛巾으로 술을 거른다(簾下自教巾漉酒)」라는 시구 역시, 음주를 통한 도연명의 정신세계의 추구를 의미한다. 국화와 술은 서로 함께 결합하여 고일한 서정의 세계를 이루어나간다. 그것은 은사의 소박한 삶과 정신적 자유를 아우른다. 이 두 시구는 도연명의 유명한 시구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꽃을 꺾어들다, 홀연히 유연한 심경으로 남산을 바라다본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²²⁾가 지니고 있는 詩意를 연상하게 한다. 「功도 체념한다. 名도 체념한다.(功. 也罷手. 名. 也罷手)」에서, 「罷手」는 손을 내젓는 동작에서부터 체념을 의미한다. 공명에 대한 체념, 그것이 원대를 살아가던 한족 지식인들의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이었다. 이 작품은 결국 체념을 통하여 전체 작품의 흐름이 매듭지어진다. 체념은 다시 말하면 달관이다. 체념이나 달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것이 원대라는 난세라고 진초암은 말하고 있다.

四. 自然의 意味

자연은 老子가 「道는 自然을 숭상한다(道法自然),²³⁾라고 설파한 이래로

21) 《論語·里仁》

22) 孟二冬 《陶淵明集譯注》 吉林文史出版社, 1996, 長春, 150면.

중국 지식인인의 심층에서 가장 높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연은 「절로 그러한 존재」이며, 「절로 흠 없이 완전무결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중국 시인의 심층에 있는 자연은 시가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되어 시가 속에 등장한다. 자연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며, 어머니의 품안 같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小尾郊一은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原題: 中國文學に現われだ自然と自然觀)》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문학과 자연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 관계가 매우 깊어, 예부터 문학에 있어서 자연을 노래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으며, 문인들 가운데서 자연을 노래하지 않았던 사람이 적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문학을 통하여 살펴볼 때, 중국인들은 자연이야말로 안주의 땅이며, 자연에서만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⁴⁾

魏晉 시대 이래로 자연은 본격적으로 중국문학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중국문학과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초암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산곡작품을 통하여 그 자신의 자연관을 표명한다.

1. 江山如畫 속의 隱士의 삶의 樣相

[中呂]山坡羊: 其二十²⁵⁾

江山如畫,	江山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茅簷低廈,	茅簷低廈에서 살아간다.
婦蠶織婢織紅奴耕稼,	아내는 누에 치고 侍婢는 비단 짜고 나는 밭을 간다.
務桑麻,	힘써 뽕나무와 삼[麻]을 기르고,
捕魚蝦,	애써 물고기와 새우를 잡는다.
漁樵見了無別話,	漁夫나 樵夫들은 만나도 별다른 말이 없다.
三國鼎分牛繼馬,	三國이 鼎立하였으되 그 놈이 그 놈이더라.

23) 《老子》25장.

24) 小尾郊一 著, 拙譯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江原大學校出版部, 1988, 春川, 序文.

25) 隋樹森, 같은 책, 148면.

興. 休羨他. 興盛해도 그들을 부러워 말라.
 亡. 休羨他. 敗亡해도 그들을 부러워 말라.

「강산은 그림처럼 아름답다(江山如畫)」라는 시구는 그대로 진초암이 표명한 自然觀이다. 江山이라는 自然을 두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존재」라고 묘사하는 단순한 표현기법 속에 그의 自然美에 대한 꾸밈없는 미의식이 담겨져 있다. 물론 이는 진초암 혼자서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방식이 아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림같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定型을 이룬다. 그 정형 속에 강산을 그림처럼, 그림을 강산처럼 바라보는 미의식이 담겨 있다. 지식인으로서 농부나 어부 혹은 초부들의 신분으로 시골에서 살아가는 은사들은, 적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신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설혹 그들이 살아가는 가옥이 「茅簷低廈」라는 미천한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왕궁의 王侯將相들보다 더 풍요롭다.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시구들, 즉 「아내는 누에 치고 侍婢는 비단 짜고 나는 밭을 간다(婦蠶繅婢織紅奴耕稼. 務桑麻. 捕漁蝦)」는 가난하되 건강한 은사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온 가족이 뭉쳐 열심히 노동하면서 林川江海 속에서 살아가는 은사들의 모습이 담박하게 그려져 있다. 이는 아름답고 건강한 폭의 隱士家族圖라 할 수 있다. 雷海宗은 《중국문화와 중국의 군대(中國文化與中國的兵)》가운데서, 「家族은 저마다 하나의 작은 國家이다(每個家族, 自己就是一個小國家)」라고 말했으며²⁶⁾, 稻葉君山은 「中國民族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防壁은 그 가족제도이다. 이 제도가 지니는 지탱력의 견고함은 아마도 萬里長城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保護中國民族的唯一障壁, 是其家族制度. 這制度支持力之堅固, 恐怕萬里長城也比不上)」라고 말했다.²⁷⁾

「漁夫나 樵夫들은 만나도 별다른 말이 없다(漁樵見了無別話)」는 是非海의

26) 雷海宗 《중국문화와 중국의 군대(中國文化與中國的兵)》 里仁書局, 1984, 臺北. 78면.

27) 金耀基 《전통에서 현대로(從傳統到現在)》 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5, 臺北. 53면.

풍과가 몰아치는 난세이므로 말조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元代가 監察制度가 가장 발달했던 시대라는 점은, 그 시대에 감시가 가장 살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초암은 「三國鼎立牛繼馬」라고 지적함으로써 시대의 혼란상을 직접적으로 표명한다. 「소 같은 놈 뒤에 오는 자는 말 같은 놈이다(牛繼馬)」라는 시구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진초암의 체념 어린 심경이 담겨져 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갈 것이며, 百姓의 삶은 영원히 고난으로 점철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홍성해도 그들을 부러워 말라. 패망해도 그들을 부러워 말라(興. 休羨他. 亡. 休羨他)」라고 노래한다. 인간세상의 흥망이나 영고성쇠에 대하여 초연한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한다.

2. 漁樵의 諷刺意識

[中呂]山坡羊·其二十四²⁹⁾

堯民堪訝.	堯民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만하다.
朱陳婚嫁.	朱陳村의 朱氏·陳氏 두 집안은 대대로 통혼하며 지내왔음을.
柴門斜搭葫蘆架.	柴門 쪽으로 비스듬히 호롱박 덩굴이 걸려 있다.
沸池蝸.	못 속의 개구리가 물 속에서 용솨아 오르고,
噪林鴉.	숲 속의 까마귀가 시끄럽게 까악 까악 운다.
牧笛聲裏牛羊下.	목동의 피리소리 속에서 牛羊이 산을 내려온다.
茅舍竹籬兩三家.	대나무 울타리를 한 초가집 두세 채가 보인다.
民. 田種多.	백성은 밭을 많이 갈고,
官. 差稅寡.	관리는 세금을 조금만 부과한다.

「堯民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만 하다. 朱陳村의 朱氏·陳氏 두 집안은 대대로 통혼하며 지내왔음을.(堯民堪訝. 朱陳婚嫁.)」에서 「朱陳婚嫁」는 朱氏와

28) 洪金富 《元代監察制度捐編》 國立政治大學 歷史研究所 碩士論文, 1972, 臺北, 10 1면. 「元代的 監察網은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가장 엄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앙의 御史臺 이외에 지방의 二處 行御史臺를 설치하고 있다. 行御史臺의 설치는 중국 역사상 元代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일이다.」

29) 隋樹森, 같은 책, 149면.

陳氏의 두터운 世誼를 의미한다. 徐州의 朱陳村에서는 주씨와 진씨만이 살아 대대로 혼인하였으므로, 轉하여 양가에서 대대로 통혼하는 사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³⁰⁾ 그런데 여기서 진초암이 어떤 의도로 「堯民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만하다(堯民堪訝)」고 하였을까? 여기서 요민은 누구를 가리키며, 진초암은 왜 「朱陳婚嫁」라는 현상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만하다고 하였을까? 그것은 혹시 고관대작을 독점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홀로 누리는 몽고족에 대한 적개심의 표명이자 강렬한 풍자가 아닐까? 그 뒤를 잇는 「柴門 쪽으로 비스듬히 호롱박 덩굴이 걸려 있다(柴門斜搭葫蘆架)」라는 빈한한 삶의 현실과 연결하여 생각해본다면, 이와 같은 짐작도 가능하게 된다.

「못 속의 개구리가 물 속에서 용솨아 오르고, 숲 속의 까마귀가 시끄럽게 까악 까악 운다(沸池蛙。噪林鴉)」라는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풍자 의식을 엿볼 수 있게 된다. 갑자기 못 속에서 튀어오르는 개구리나, 시끄럽게 까악 까악 울어대는 까마귀는, 모두 시골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본다면, 이 가운데에는 개구리나 까마귀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풍자의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목동의 피리소리 속에서 牛羊이 산을 내려온다(牧笛聲裏牛羊下)」라는 시구 역시 그렇게 본다면, 牛羊 같은 漢族을 지배하는 목동은 이민족인 몽고족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시골의 정겨운 풍경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리 단순하지 않은 시대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유추도 가능하다. 「대나무 울타리를 한 초가집 두세 채가 보인다(茅舍竹籬兩三家)」라는 시구 뒤에 나타나는 「백성은 밭을 많이 갈고, 관리는 세금을 조금만 부과한다(民。田種多。官。差稅寡)」라는 풍자적인 뉘앙스가 강렬하게 풍겨나는 시구에서, 官은 물론 몽고족 출신의 고관이거나 그들을 도와 징세를 담당하는 계층, 곧 色目人이나 그 아류에 해당하는 계층일 것이다.

30) 李相殷 監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2, 서울. 608면.

3. 逍遙自適하는 삶

[中呂]山坡羊：其二十六³¹⁾

塵心撇下.	塵心을 다 떨쳐버리고.
虛名不掛.	虛名을 품지 않는다.
種園桑棗園茅廈.	나지막한 집 마당에 뽕나무와 대추나무 심어둔다.
笑諠譁.	낄낄거리며 웃고 지내며.
醉麻查.	麻查(麻渣)에 도취하며 지낸다.
閑來閒訪漁樵話.	한가해지면 漁夫와 樵夫들을 찾아가 담소를 나눈다.
高臥綠陰清味雅.	녹음 아래에 베개 높이 하고 드리누우면 清逸한 맛이 그윽하다.
栽. 三徑花.	三徑에 심은 꽃을 보며 지내고.
看. 一段瓜.	一團의 외(瓜)를 심으며 지낸다.

「塵心을 다 떨쳐버리고, 虛名을 품지 않는다(塵心撇下, 虛名不掛)」라는 시구들은, 원대라는 난세를 살아가는 한족 지식인들의 체념하는 심경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소요자적하는 삶을 살아간다. 어차피 원대라는 난세상황 속에서는 부귀영화가 추구 가능한 대상이 아니었으며, 出仕와 歸隱 가운데서 오직 歸隱만이 허용되던(그것도 생각건대 관념적 歸隱쪽으로 지향되던) 원대의 시대상황 속에서 그들은 숙명적으로 체념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물론 微官末職의 출시는 가능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염한 기개를 품고 살아가는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쉽사리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자연은 그 품안으로 귀의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나지막한 집 마당에 뽕나무와 대추나무 심어둔다(種園桑棗園茅廈)」라는 고달픈 농사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낄낄거리며 웃고 지내며, 癡查(癡渣)에 도취하며 지낸다(笑諠譁, 醉麻查)」하는 自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한가해지면 어부와 초부들을 찾아가 세상사에 대하여 담론한다. 「漁樵話」는 이 시대 은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의 역사관이자 역사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진초암은 또 「녹음 아래에 베개 높이 하고

31) 隋樹森, 같은 책, 149면.

드러누우면 淸逸한 맛이 그윽하다(高臥綠音淸味雅),라고 하면서, 녹음 아래에서의 자적하는 심경을 그려낸다. 그런 심경의 연장선상에 「三徑에 심은 꽃을 보며 지내고, 一段의 외(瓜)를 심으며 지낸다(栽. 三徑話. 看. 一段瓜)」라는 자연의 경지를 응시하는 시선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와 같은 逍遙自適하는 삶은 일찍이 莊子の 逍遙遊 사상에서 이미 유래하고 있으며, 그것이 육조에 이르게 되면 자적주의로 화려한 발전을 하게 된다. 그것은 난세의 철학으로 태어난 노장사상에 근거한다. 村上嘉實은 《六朝思想史研究》가운데에서 이점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사람은 난세에 처하여 강렬하게 자신을 내세우면, 곧 생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 들게 된다. 그때 하나의 혈로를 뚫는 방법으로서, 먼저 대상 및 환경에 隨順하는 태도가 취해진다. 그런데 이 수순의 가운데에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의 경지가 발견되었다. 인간이 커다란 傷害에 갑자기 부딪치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虛하게 함으로서 그 대상에게 패배하게 되면 오히려 거대한 힘이 부여된다. 이 수순에 의하여 참된 자유가 생겨남을 알았던 것이 노장사상의 萌芽이다. 그런데 수순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老子的 自然으로 되고, 自由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莊子の 自適으로 된다. 그러므로 장자의 자적도 노자의 자연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다.³²⁾

그리고 이와 같은 소요자적관이 그 후 중국문학, 특히 시가문학 전반에 걸쳐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원대산곡 가운데에서도 이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질은 영향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五. 結語

지금까지 필자는 陳草庵의 散曲작품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나타난 亂世의 의미, 避世의 의미, 그리고 自然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亂世觀·避世觀·自然觀은 하나의 線上에 나타난 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긴밀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32)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 349면.

난세·피세·자연에 대한 원대 산곡작가의 인식은 원대산곡 전반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개의 산곡작가들은 대체적인 공유인식의 흐름 속에서 각각 서로 다른 특징적 표현방식을 추구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진초암은 난세를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낮추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바보처럼 살아가고 쇠락한 것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伏低伏弱, 裝呆裝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난세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선들이 상이한 표현방식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

避世觀은 이와 같은 난세에 처하여 살아가면서 亂世의 激浪을 여하히 피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生存方法의 思想史的 발굴이라 할 수 있다. 진초암에게서 나타나는 宿命觀, 그리고 道德律의 固執·固守 등은 그가 나름대로 터득한 난세 속의 避世哲學이라 할 것이다. 亂世와 道德 사이의 관계, 이는 필자에게 있어서 금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自然觀은 隱士의 사상적 이념의 종착점이고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사상적 차원에서 미학적 차원으로 발전하여 이루어낸 것이 바로 자연미의 발견이다. 예컨대 「江山如畫」에서 江山이라는 自然이 如畫라는 美意識과 결합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이해해야만 할 필요성을 독자에게 요구하는 시구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司馬遷 《史記》 臺北, 鼎文書局, 1978
 《論語》 臺北, 藝文印書館, 1976
 《孟子》 臺北, 藝文印書館, 1976
 《新譯 老子讀本》 臺北, 三民書局, 1995
 劉向 《戰國策》 臺北, 九思出版社, 1978
 蘇天爵 《元文類》 臺北, 世界書局, 1967
 錢穆 《國史大綱》 臺北, 商務印書館, 1956
 隋樹森 《全元散曲》 北京, 中華書局, 2000
 孟冬冬 《陶淵明集譯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6

- 邊欽立 《陶淵明集》 北京, 中華書局, 1979
- 雷海宗 《中國文化與中國的兵》 臺北, 里仁書局, 1984
- 金耀基 《從傳統到懸在》 臺北, 時報出版文化事業有限公司, 1985
- 洪金富 《元代監察制度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 歷史研究所碩士論文, 1972
-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1976
- 小尾郊一 著, 拙譯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春川, 江原大學校出版部, 1988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編 《中文大辭典》 臺北, 中華學術院, 1976
- 리처드 랭햄, 데일 피터슨 공저, 이명희 역 《악마 같은 남성》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8
- 권영민 편 《해방40년의 문학》③詩 서울, 민음사, 1985
- 李炯基 《돌베개의 詩》 서울, 文苑社, 1971

【中文提要】

本論文總分為如下三個部分。

在第一章「序言」部分, 簡單地敘述本論文的研究對象·目的與研究方法。

在第二章「亂世的意義」部分, 先探討亂世與天意之間的關係。陳草庵以為, 連天意也有時候是個不能完全可靠的存在。在亂世與名利否定觀, 陳草庵把人生視為夢幻似的存在, 指出追求名利最後會變為落花似的虛無存在。在亂世與是非觀, 陳草庵指出, 是非就是可怕的人世風波, 而忌諱談論賢愚話, 勸勉讀者依照自然的道理來生活。

在第三章「避世的意義」部分, 陳草庵先指出, 飲酒就是從亂世裏的窮乏和苦難逃避的重要媒體。而從亂世風波可逃避的另一種方法, 陳草庵強調「休爭閒氣, 休生不義, 終身孝悌, 去他疑, 掩人非, 休倚官之勢, 富莫驕·貧莫恥」等的道德律。進而他要通過「功, 也罷手, 名, 也罷手」, 也就是通過「罷手」的哲學, 從亂世風波, 要保護自己。

在第四章「自然的意義」部分, 陳草庵描寫出「江山如畫」的美意識。自然美可以說是上天給亂世文人(隱士)所許可的禮物。而且漁樵的諷刺意識, 可以說是在山林江海生活的山林者(隱士), 通過漁樵話所表現出的自

然觀·人生觀，也是他們的歷史觀。陳草庵也描寫山林江海裏生活的隱士清高的逍遙觀，就是「高臥綠陰清味雅」的境界。

在第五章「結語」部分，通過本論文概括性的說明，整理了本論文的內容。

【主題語】

亂世觀，避世觀，自然觀，隱士，自然美，家族觀，天意，名利否定觀，漁樵話，是非觀。